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438

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that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fluences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ife-changing

전명수, 송선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Myeong-Soo Jeon(meesegy5@hanmail.net), Sun-Hee Song(shsong@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 3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학력, 월 용돈, 배우자에만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서 학습 지향유형이 활동 지향유형에 비해 교육만족도도 높고, 삶의 변화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유형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삶의 변화 영향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가정, 사회・여가, 신체・정서, 행복감, 삶의 변화 전체에서 학습 지향 유형과 목표지향유형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인교육 | 참여 동기 유형 | 교육만족도 | 삶의 변화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hether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fluenced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the life-changing. The research objects were 340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of lifelong education and over 65 years o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ife-changing only in the sexuality, education, monthly pocket money and spouse.

Secondly,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ife-changing, it was shown that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of the type of education-oriente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type of activity-oriented and felt the life-changing much. Thirdl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luable was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independent valuables were the sub-factors of the type of participation valuables was shown that only education-oriented and goal-oriented influenced the positive effects.

Fourthly, the result being proved whether there were the effects of life-changing according to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education was indicated that only the type of education-oriented and goal-oriented influenced the positive effects.

■ keyword : | Education for the Elderly |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 Life-changing |

접수번호 : #120629-001
접수일자 : 2012년 06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7월 18일
교신저자 : 송선희, e-mail : shsong@hoseo.edu

I. 서 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①항)”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 정의는 학교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규상으로 학령기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평생교육의 대상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1].

특히 노년기 삶의 변화와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대표적인 해결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 평생교육이다. 많은 교육기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인 평생교육 참여정도는 매우 저조한 상태다. 노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교육시설 접근성의 취약,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부족, 노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비용부담 등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2].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2,620개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요대상별로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 84,836개중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49,096개로 가장 많은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388개로 가장 적어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 향후 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Houle은 성인교육의 참여 동기유형을 활동지향형, 목적지향형, 학습지향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활동지향형 학습자는 학습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사회적 인간관계의 유지, 개선 확대에 의미를 둔다. 목적지향형 학습자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학습지향형 학습자는 지식자체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개념을 지녀 학습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세 집단은 별개의 상호배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서로 중복적인 관계에 있다[4].

임현민(2003)은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칠 생활사건 조사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서 자극되는 교육참여 동기를 규명하고, 평생교육 참여 동기 형성요인의 하나로 참여자의 경험을 규명했다[5].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다르게 축적해 온 경험은 평생교육 참여 동기의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협, 기영화(2008)은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활동 지향적 참여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6].

이기환(2007)에 따르면 참여 동기와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참여동기의 목표 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세 변인 모두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유의성을 보였다[7]. 심영옥(2005)은 앞으로 학습대상이 고학력층 분포가 많음에 대비해 그들의 욕구를 감안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8]. 개인들의 참여 동기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변화에 영향력이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평생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급변 하는 현실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회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 동기 유형, 교육만족도,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또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노인 평생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교육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 동기 유형, 교육만족도,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2.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가?
3.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은 평생교육을 받은 노인들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이 있는가?
4.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삶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노인들에게 2012년 4월 9일~4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충청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노인대학, 노인정,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36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20부를 제외하고 340부를 회수 하였다. 노인들에게 연구와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음 노인들의 특성상 1:1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다수의 노인들은 시력이 약하여 글을 읽는 데는 적합하지 않거나 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연구자 및 연구 보조자가 직접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설문의 작성시간은 약 20분정도 소요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33	39.1
	여	207	60.9
연령	65세-70세미만	97	28.5
	70세-75세미만	98	28.8
	75-80세미만	82	24.1
	80세이상	63	18.5
학력	무학	61	17.9
	초등학교 졸업	127	37.4
	중학교 중퇴	56	16.5
	중학교 졸업	58	17.1
	고등학교 졸업	29	8.5
	대학교 졸업	9	2.6
월 용돈	10만원미만	86	25.3
	10만원-20만원	75	22.1
	20만원-30만원	83	24.4
	30만원-40만원	39	11.5
	40만원이상	57	16.8
배우자	배우자 없다	157	46.2
	배우자 있다	183	53.8
참가비용	무료	164	48.2
	1만원미만	101	29.7
	1만원-3만원미만	56	16.5
	3만원-5만원미만	8	2.4
	5만원이상	11	3.2
계		340	100.0

2. 측정도구

2.1 교육 참여 동기 유형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은 최운실[9]이 사용한 성인의 교육 참여에 관한 조사지를 참고로 임현민[5]이 중년기 성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33문항을 사용하였다. 활동지향형 19문항 .88 목표지향형 6문항 .68 학습지향형 8문항 .90이었다.

2.2 교육만족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만족도 최근영[10]에서 인용 20문항 중 12문항으로 구성한 서명환[1]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935였다.

2.3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학습 참여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알아본 우채영[11]연구에서 사용된 12문항 중 9문항을 수정 보완한 서명환[1]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926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변인		문항수	내적 신뢰도
교육 참여 동기 유형	활동지향	19	.88
	목표지향	6	.75
	학습지향	8	.88
	전체	33	.94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3	.87
	교수자	3	.88
	지원서비스	3	.86
	환경	3	.87
	전체	12	.94
삶의 변화	가정생활	2	.83
	사회여가	2	.79
	신체정서	2	.79
	행복감	3	.89
	전체	9	.93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Version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참여 동기 유형, 교육만족도, 삶의 변화 차이

1.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로 교육 참여 동기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와 하위척도 교수자, 삶의 변화 전체와 하위척도 신체・정서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의 경우, 남자(M=47.13)보다 여자(M=49.18)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교수자 하위척도에서도 남자(M=11.73)보다 여자(M=12.56)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삶의 변화에서도 전체에서는 남자(M=35.26)보다 여자(M=37.01)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신체・정서 하위척도에서도 남자(M=7.74)보다 여자(M=8.42)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2 학력별 차이

학력별로 교육 참여 동기 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 전체와 삶의 변화 전체 및 사회・여가, 신체・정서 하위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만족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졸업(M=50.21), 무학(M=48.51), 중학교 중퇴(M=48.02)가 높고 고등학교 졸업(M=46.69), 중학교 졸업(M=46.31)이다음으로 높고 대학교 졸업(M=42.67)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변화에서 전체는 초등학교 졸업(M=37.79), 무학(M=36.23), 중학교 중퇴(M=36.04)가 높고 중학교 졸업(M=34.88), 고등학교 졸업(M=34.83)이 다음으로 높고

표 3. 성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p)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남	133	11.69	2.47	t=-1.562
		여	127	12.15	2.74	(p=.119)
	교수자	남	133	11.73	2.47	t=-3.079
		여	127	12.56	2.38	(p=.002)
	지원서비스	남	133	11.79	2.49	t=-1.387
		여	127	12.17	2.50	(p=.166)
	환경	남	133	11.92	2.37	t=-1.400
		여	127	12.30	2.56	(p=.162)
	전체	남	133	47.13	8.53	t=-2.102
		여	127	49.18	8.97	(p=.036)
삶의 변화	가정	남	133	7.79	1.77	t=-1.418
		여	127	8.08	1.86	(p=.157)
	사화여가	남	133	7.89	1.62	t=-1.717
		여	127	8.21	1.72	(p=.087)
	신체정서	남	133	7.74	1.77	t=-3.648
		여	127	8.42	1.60	(p=.000)
	행복감	남	133	11.84	2.25	t=-1.803
		여	127	12.31	2.38	(p=.072)
	전체	남	133	35.26	6.33	t=-2.402
		여	127	37.01	6.70	(p=.017)

표 4. 학력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p)
교육만족도	프로그램	무학	61	11.80	2.83	F=1.609 (p=.157)
		초등학교 졸업	127	12.45	2.34	
		중학교 중퇴	56	11.89	2.75	
		중학교 졸업	58	11.52	3.22	
		고등학교 졸업	29	11.59	2.04	
		대학교 졸업	9	11.00	1.58	
	교수자	무학	61	12.54	2.28	F=4.422 (p=.001) f<e=d=c<a=b
		초등학교 졸업	127	12.82	2.26	
		중학교 중퇴	56	11.98	2.31	
		중학교 졸업	58	11.59	2.86	
		고등학교 졸업	29	11.28	2.42	
		대학교 졸업	9	10.67	1.80	
	지원서비스	무학	61	11.80	2.80	F=2.184 (p=.056)
		초등학교 졸업	127	12.45	2.30	
		중학교 중퇴	56	12.07	2.33	
		중학교 졸업	58	11.69	2.70	
		고등학교 졸업	29	11.79	2.47	
		대학교 졸업	9	10.11	1.69	
	환경	무학	61	12.36	2.39	F=1.833 (p=.106)
		초등학교 졸업	127	12.50	2.30	
		중학교 중퇴	56	12.07	2.52	
		중학교 졸업	58	11.52	3.02	
		고등학교 졸업	29	12.03	2.15	
		대학교 졸업	9	10.89	2.20	
	전체	무학	61	48.51	8.80	F=2.782 (p=.018) f<e=d<c=a=b
		초등학교 졸업	127	50.21	8.25	
		중학교 중퇴	56	48.02	8.79	
		중학교 졸업	58	46.31	10.42	
		고등학교 졸업	29	46.69	7.50	
		대학교 졸업	9	42.67	5.29	

Duncan test: a=무학, b=초등학교 졸업, c=중학교 중퇴, d=중학교 졸업, e=고등학교 졸업. f=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M=32.44)로 가장 낮았다.

사회・여가 하위척도에서는 초등학교 졸업(M=8.50), 무학(M=8.00), 중학교 중퇴(M=7.96)가 높고 고등학교 졸업(M=7.79), 중학교 졸업(M=7.67)이 다음으로 높고 대학교 졸업(M=7.00)이 가장 낮았다.

신체・정서 하위척도에서는 초등학교 졸업(M= 8.54), 무학(M=8.43), 중학교 중퇴(M=7.96)가 높고 중학교 졸업(M=7.67), 고등학교 졸업(M=7.38)이 다음으로 높고 대학교 졸업(M=7.11)이 가장 낮았다.

표 5. 월 용돈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p)
교육참여동기	활동지향	10만원미만	86	60.03	14.21	F=1.153 (p=.332)
		10만원-20만원	75	60.05	13.01	
		20만원-30만원	83	61.33	11.90	
		30만원-40만원	39	57.82	12.45	
		40만원이상	57	63.12	11.84	
	목표지향	10만원미만	86	19.77	4.89	F=2.646 (p=.033) d=a<b=c<e
		10만원-20만원	75	20.48	4.44	
		20만원-30만원	83	21.00	4.69	
		30만원-40만원	39	19.59	4.33	
		40만원이상	57	21.95	3.92	
	학습지향	10만원미만	86	28.01	7.71	F=.667 (p=.615)
		10만원-20만원	75	28.13	6.28	
		20만원-30만원	83	28.45	7.63	
		30만원-40만원	39	28.41	5.99	
		40만원이상	57	29.79	5.47	
	전체	10만원미만	86	107.81	24.82	F=1.329 (p=.259)
		10만원-20만원	75	108.67	21.50	
		20만원-30만원	83	110.77	22.03	
		30만원-40만원	39	105.82	21.14	
		40만원이상	57	114.86	18.72	

Duncan test: a=10만원미만, b=10만원-20만원, c=20만원-30만원, d=30만원-40만원, e=40만원이상

1.3 월 용돈별 차이

월 용돈금액별로 교육 참여 동기 참여 동기,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목표지향 하위척도에서만 월 용돈 금액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용돈금액이 4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M=21.95)가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목표지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20만원-30만원(M=21.00), 10만원-20만원(M=20.48), 30만원-40만원(M=19.59), 10만원미만(M=19.77)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1.4 배우자 동거여부별 차이

배우자 동거여부별로 교육 참여 동기 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전체 및 하위척도

표 6. 배우자 동거여부별 차이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p)
교육 참여 동기 유형	활동지향	배우자 없다	157	58.64	12.14	t=-2.660 (p=.008)
		배우자 있다	183	62.32	13.19	
	목표지향	배우자 없다	157	20.01	4.24	t=-2.119 (p=.035)
		배우자 있다	183	21.05	4.80	
	학습지향	배우자 없다	157	27.34	6.86	t=-2.882 (p=.004)
		배우자 있다	183	29.47	6.71	
	전체	배우자 없다	157	105.99	20.71	t=-2.882 (p=.004)
		배우자 있다	183	112.84	22.80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전체점수에서, 배우자가없는 연구대상자(M=105.99)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대상자(M=112.84)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척도 활동지향에서 배우자가 없는 연구대상자(M=58.64)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대상자(M=62.32)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목표지향에서 배우자가 없는 연구대상자(M=20.01)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대상자(M=21.05)가 더 높았고 학습지향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연구대상자(M=27.34)보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대상자(M=29.47)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1.5 참가 비용별 차이

참가비용별로 교육 참여 동기유형, 교육 만족도, 삶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전체와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 하위척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참여 동기 유형 전체에서 참가비용이 무료라고 한 응답자(M=105.63)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1만원-3만원미만(M=112.27), 5만원 이상(M=112.64), 1만원 미만(M=113.04), 3만원-5만원 미만(M=127.88)순으로 높았다.

활동지향 하위척도에서 참가비용이 무료라고 한 응답자(M=58.3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1만원-3만원미만(M=61.18), 1만원 미만(M=62.65), 5만원 이상(M=63.64), 3만원-5만원 미만(M=74.13)순으로 높았다. 학습지향 하위척도에서 참가비용이 무료라고 한 응답자(M=27.21)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5만원(M=29.00), 1만원 미만(M=29.42), 1만원-3만원미만(M=29.96), 3만원-5만원 미만(M=31.88)순으로 높았다.

2.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 차이

2.1교육 참여 동기 유형별 만족도 차이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교육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점수를 평균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교육 참여 동기 응답자의 유형으

표 7. 참가비용별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p)
교육 참여 동기 유형	활동지향	무료	164	58.31	12.88	F=4.540 (p=.001) a=c=b=e<d
		1만원미만	101	62.65	12.24	
		1만원-3만원미만	56	61.18	12.20	
		3만원-5만원미만	8	74.13	17.84	
		5만원 이상	11	63.64	7.05	
	목표지향	무료	164	20.11	4.67	F=1.022 (p=.396)
		1만원미만	101	20.97	4.65	
		1만원-3만원미만	56	21.13	4.02	
		3만원-5만원미만	8	21.88	5.49	
		5만원 이상	11	20.00	4.34	
	학습지향	무료	93	27.21	6.73	F=3.110 (p=.016) a=b=c=d=e
		1만원미만	50	29.42	7.18	
		1만원-3만원미만	114	29.96	6.18	
		3만원-5만원미만	81	31.88	6.92	
		5만원 이상	2	29.00	6.16	
	전체	무료	93	105.63	22.13	F=3.668 (p=.006) a=c=b=e<d
		1만원미만	50	113.04	21.83	
		1만원-3만원미만	114	112.27	20.25	
		3만원-5만원미만	81	127.88	29.53	
		5만원 이상	2	112.64	15.68	

Duncan test: a=무료, b=1만원미만, c=1만원-3만원미만, d=3만원-5만원미만, e=5만원 이상

표 8. 교육 참여동기 유형별 교육 만족도의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p)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활동지향	45	10.64	2.89	F=13.700 (p=.000) a<b<c
		목표지향	104	11.51	2.66	
		학습지향	169	12.59	2.21	
	교수자	활동지향	45	10.80	2.37	F=14.594 (p=.000) a<b<c
		목표지향	104	11.98	2.19	
		학습지향	169	12.77	2.25	
	지원서비스	활동지향	45	10.91	2.43	F=10.798 (p=.000) a=b<c
		목표지향	104	11.60	2.57	
		학습지향	169	12.53	2.16	
	환경	활동지향	45	10.78	2.33	F=11.548 (p=.000) a<b=c
		목표지향	104	11.92	2.31	
		학습지향	169	12.60	2.33	
	전체	활동지향	45	43.13	8.64	F=17.090 (p=.000) a<b<c
		목표지향	104	47.01	8.35	
		학습지향	169	50.50	7.61	

Duncan test: a=활동지향, b=목표지향, c=학습지향

로 설정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점수에서 동점이 나온 응답자는 결측 처리하였다.

교육 참여 동기유형별로 교육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교육 만족 전체와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 만족도 전체에서 학습지향유형(M=50.5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목표지향유형(M=47.01), 활동지향유형(M=43.13)순이었다.

교육 만족의 하위척도 프로그램 만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59), 목표지향유형(M=11.51), 활동지향유형(M=10.64)순이었다.

교수자 만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77)이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유형(M=11.98), 활동지향유형(M=10.80) 순이었다. 지원서비스 만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53)

표 9. 교육 참여 동기 유형별 삶의 변화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p)
삶의 변화	가정	활동지향	45	7.09	2.02	F=12.602 (p=.000) a<b<c
		목표지향	104	7.67	1.85	
		학습지향	169	8.39	1.53	
	사회여가	활동지향	45	7.20	1.73	F=14.287 (p=.000) a<b<c
		목표지향	104	7.79	1.57	
		학습지향	169	8.47	1.50	
	신체정서	활동지향	45	7.16	1.62	F=13.663 (p=.000) a<b=c
		목표지향	104	8.03	1.51	
		학습지향	169	8.50	1.59	
	행복감	활동지향	45	11.11	2.34	F=14.177 (p=.000) a=b<c
		목표지향	104	11.61	2.38	
		학습지향	169	12.71	1.96	
	전체	활동지향	45	32.56	6.56	F=18.472 (p=.000) a<b<c
		목표지향	104	35.10	6.21	
		학습지향	169	38.07	5.62	

Duncan test: a=활동지향, b=목표지향, c=학습지향

표 10. 교육 만족에 대한 교육참여 동기유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독립변인)	B	SE	β	t
교육 만족도전체	활동지향	-.073	.048	-.106	-1.507
	목표지향	.450	.153	.232	2.945**
	학습지향	.540	.098	.418	5.499***

**p<.01, ***p<.001

이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유형(M=11.60)과 활동지향유형(M=10.91)이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만족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60)과 목표지향유형(M=11.92)가 활동지향유형(M=10.78)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교육 참여 동기 유형별 삶의 변화 차이

참여동기유형별로 삶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삶의 변화 전체와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삶의 변화 전체에서 학습지향유형(M=38.0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목표지향유형(M=35.10), 활동지향유형(M=32.56)순이었다. 삶의 변화의 하위척도 가정 변화에서는 학습지향유형(M=8.39)이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유형(M=7.67), 활동지향유형(M=7.09)순이었다.

사회・여가 변화에서도 학습지향유형(M=8.47)이 가장 높았고 목표지향유형(M=7.79), 활동지향유형(M=7.20) 순이었다. 신체・정서 변화에서는 학습지향유형(M=8.50)과 목표지향유형(M=8.03)이 활동지향유형(M=7.1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변화에서는 학습지향유형(M=12.71)이 목표지향유형(M=11.61)과 활동지향유형(M=11.1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 참여 동기가 교육 만족과 삶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만족을 종속변인, 교육 참여 동기유형의 하위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지향과 목표지향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변량의 약 29% 설명, R2=293, F(3, 336)=46.448, p<.000). 교육만족의 각 하위척도를 종속변인, 교육 참여 동기유형의 하위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프로그램 만족에 대해서는 학습지향 약 46.5% 설명(R^2=289, $F_{(3,\ 336)}$=45.433, p<.000), 교수자 만족에 대해

표 11. 교육 만족 하위척도에 대한 교육 참여 동기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독립변인)	B	SE	β	t
프로그램	활동지향	-.016	.014	-.079	-1.118
	목표지향	.090	.046	.155	1.956
	학습지향	.179	.029	.465	6.089***
교수자	활동지향	-.028	.014	-.147	-1.955
	목표지향	.127	.045	.238	2.819**
	학습지향	.118	.029	.330	4.050***
지원	활동지향	-.008	.014	-.041	-.572
	목표지향	.121	.045	.221	2.715**
	학습지향	.123	.029	.337	4.290***
환경	활동지향	-.021	.015	-.106	-1.410
	목표지향	.112	.046	.205	2.423*
	학습지향	.120	.030	.330	4.044***

*p<.05, **p<.01, ***p<.001

표 12. 삶의 변화 하위척도에 대한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독립변인)	B	SE	β	t
가정	활동지향	−.010	.010	−.073	−1.027
	목표지향	.059	.032	.149	1.842
	학습지향	.118	.021	.441	5.683***
사회·여가	활동지향	−.013	.009	−.103	−1.433
	목표지향	.060	.030	.163	2.025*
	학습지향	.110	.019	.447	5.759***
신체·정서	활동지향	−.020	.010	−.153	−2.005*
	목표지향	.097	.032	.262	3.060**
	학습지향	.069	.020	.279	3.379**
행복감	활동지향	.003	.013	.017	.248
	목표지향	.087	.041	.170	2.145*
	학습지향	.130	.026	.380	4.974***

서는 학습지향 33%, 목표지향 23.8% (R^2=190, $F_{(3, 336)}$=26.312, p<.000), 지원 만족에 대해서는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전체 변량의 약 25% 설명, R^2=247, $F_{(3, 336)}$=36.653, p<.000), 환경 만족에 대해서도 학습지향과 목표지향(전체 변량의 약 19% 설명, R^2=186, $F_{(3, 336)}$= 25.6748,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삶의 변화의 각 하위척도를 종속변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위척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정 변화에 대해서는 학습지향 44.1%(R^2=263, ($F_{(3, 336)}$=39.877, p<.000), 사회・여가 변화에 대해서는 학습지향 44.7% 목표지향 1.3.6% (R^2=262, $F_{(3,336)}$ =39.761, p<.000), 신체・정서 변화에 대해서는 학습지향 27.9,% 목표지향 26.2%활동지향 15.3%(R^2=166, $F_{(3, 336)}$=22.269, p<.000), 행복감 변화에 대해서도 학습지향 38% 목표지향17 % (R^2=287, $F_{(3, 336)}$=45.048,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인구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별, 학력, 월 용돈, 배우자에만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서도 높은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고학력자보다 교육만족도와 삶에 높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월 용돈별에선 월 용돈의 차이에 따라 목표지향 만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보단 배우자가 있는 학습자들이 더 높은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서명환의 논문을 보면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대구 경북의 대도시와 충남지역 중소도시간의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보였다.

둘째, 평생교육을 받은 교수자의 만족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은 차이가 나타났고 교육만족도 전체와 삶의 변화에서도 학습 지향유형이 활동 지향유형에 비해 더 높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교육 만족을 종속 변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위척도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유형만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른 삶의 변화 영향이 있는지 검증한 결과 가정, 사회・여가, 신체・정서 ,행

복감, 전체에서 학습 지향 유형이 가장 영향이 있음을 보였고 삶의 변화 전체와 하위척도 모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유형과 만족도에서 학력과 성별이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남성노인의 교육적인 체제에 기인해야 하며 평생교육 대상자에 욕구충족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만족도 제고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육만족도가 삶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 학습자들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며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평생 교육 참여 동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집단과 비교가 가능한 비 참여 집단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참여 동기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수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충남지역의 평생교육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를 연구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하여 전국 규모의 평생교육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서명환, *노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박사학위 논문, 2011.

[2] 한정란, 김종남, 김향숙, "노인 평생교육 참여의 장해요인", Andragogy today, 제13권, 제2호 pp.105-131, 2010.

[3], 이혜진, 김진화,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의 통합적 전문성 유형화와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농업개발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3호, pp.295-319, 2008.

[4] 권두승, *성인 학습 지도 방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교육과학사, 2000.

[5] 임현민, *중년기 성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6] 유해엽, 기영화, "노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제5권, 제1호, pp.47-66, 2008.

[7] 이기환, *평생교육 학습자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8] 심영옥, "고령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으로서 노인 미술 교육 활성화", 교육발전연구, 제21권, 제2호, pp.171-196, 2005.

[9] 최운실, *성인교육 유형에 따른 교육 참여 특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10] 최근영, *성인학습자의 평생 학습 만족도와 성과인식 상관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1] 우채영, *노인들의 학습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저 자 소 개

전 명 수(Myeong-Soo Jeon)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국어 국문학사)
- 2007년 8월 : 호서대학교(문화예술학 석사)
- 2012년 5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 박사과정(노인복지학과)

<관심분야> : 노인교육, 참여 동기 유형, 교육만족도 삶의 변화

송 선 희(Sun-Hee Song) 정회원

- 1990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문학사)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교육심리, 노인심리, 노인교육